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3. 5. 11.(목) 11:00,  
(지면) 2023. 5. 12.(금) 조간

배포 2023. 5. 11.(목) 06:00

## 인천항 지능형(스마트) 공동물류센터 착공

- 로봇을 통한 화물 적치 및 인공지능 기반 재고관리 등 지능형(스마트) 기술 적용으로 효율적인 물류센터 운영 기대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신축공사가 5월 12일(금) 공식 착공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.

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에 지상 3층, 연면적 19,000㎡ 규모로 지어지며, 약 2년간의 공사 후 2025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.

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는 GDC(Global Distribution Center)\* 모델을 기반으로 로봇을 통한 화물 적치, 인공지능 기반 재고관리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게 될 예정이다. 이를 통해 기존 물류센터보다 작업시간은 약 15%, 운영비용은 약 20%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\* 전자상거래 업체 물품을 대량 반입하여 고객 주문에 따라 재포장 후 국내·외로 반출하는 글로벌 물류배송센터

특히, 센터의 처리 물량 중 중소기업 화물을 50% 이상 처리하도록 하여 중소기업도 스마트 물류기술을 통해 물류 운영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“역량있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내기업들이 미래형 물류 인프라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화물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해양수산부는 ‘신성장4.0 전략’에 따라 2025년까지 인천항·부산항 2개소, 2032년까지 5개소의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\* (3대 과제) ① 미래 기술 선제 확보 ② 디지털 기술 혁신 ③ 신산업 전략을 통한 전략분야 초격차신격차 창출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	책임자	과 장	오영록 (044-200-5750)
	스마트해운물류팀	담당자	사무관	강지욱 (044-200-6204)

## 참고

## 인천항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감도 및 사업 위치도



인천항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감도



인천항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사업 위치도